은여울 리딩스타





• Group Bookit 27|

• 독서금융교육활동 3차 후기

진행일정 & 참여인원

3차 독서모임

- 10월 16일 도서 & 활동지(모임활동)
- 10월 16일 ~ 20일 도서 & 교구재활동(가정활동)

----- 6명

이들(8살) 이봄(11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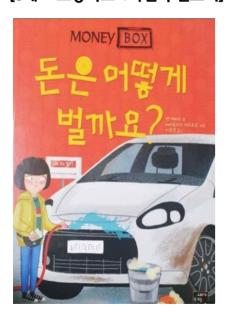
이서진(8살) 이하진(10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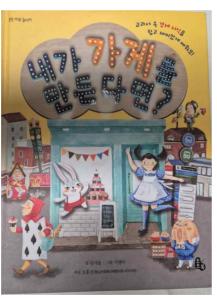
문승호(8살) 문지호(10살)

Bank it 추천도서 & 활동지/교구재★★



[6세 ~ 초등학교 1학년 추천도서] [초등학교2학년 ~ 4학년 추천도서]







활동지/교구재(나만의 가게)





활동방식 및 내용

<u>1. 모임활동</u>

- 모여 도서를 읽고 활동지 하기





1. 모임활동

- 10월 16일 모임을 통해 [돈은 어떻게 벌까요?]를 읽고 활동지를 했다.





✓ ♥ 내용예측

돈을 아껴쓸것같다 / 어떤친구가 돈이 없어서 돈을 버는 일을 찾을것 같아요 /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줄것 같다(2명) / 창고를 청소해서 돈을 받을것 같습니다 또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려줄것 같습니다 /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이야기

♥ 질 문 만 들 기

어린이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까? / 2만원 줘도 될까? / 창고정리를 다 끝냈을까? / 용돈으로 무엇을 살까? / 돈을 어디에 쓸까? / 돈을 얼마나 줬을까? / 돈을 벌기위해 꼭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 용돈을 얼마 받았을까? / 주스를 왜 팔았을까? / 마야가 주스를 만들었을까?

♥ 핵심문장

가끔 힘들때도 있었지만 제가 결국 일을 끝냈어요! / 결국 일을 해냈어요 끈기있게 잘해냈구나 / 이건 네가 일해서 번돈이야 / 동전 만드는 일은 화폐주조라고 합니다 / 마야 그돈으로 뭘 할꺼니? / 발명하기

♥ 이책의 느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알게 됐다 / 좋기하지만 글씨가 눈에 잘 안들어오는 느낌 / 돈 벌기▲ 힘들다(3명) / 신기했다



★활동방식 및 내용

2. 가정활동 (나만의 가게)

- 10월 16일 ~ 20일까지 각 가정에서 '내가 가게를 만든다면?' 책을 읽고, 활동지를 참고하며 '나만의 가게'만들기를 했다. 그리고 단체카톡방에 공유했다.



[마음으로 만든 맘버지♥]

햄버거 가게로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버거를 파는 가게입니다.



[최고**♥**뷔페]

많은 음식들이 있고 맛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로봇이 오고, 그릇을 넣고 로봇머리에 버튼을 누르면 돌아갑니다. 신기합니다.



[색종이 접는 도토리가게]

종이접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내가 도와줄수있어. 내가 접은 종이접기 작품들을 살 수도 있고, 재료도 살 수 있어. 내가 발명한 막날려도 20초 날 수 있는 종이비행기 도안도 접어볼 수 있어. 종이접기를 사랑하는 친구들 나의 가게로 와~ 뭐든지 도와줄게~



★활동방식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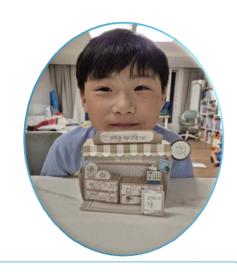
2. 가정활동 (나만의 가게)

- 10월 16일 ~ 20일까지 각 가정에서 '내가 가게를 만든다면?' 책을 읽고, 활동지를 참고하며 '나만의 가게'만들기를 했다. 그리고 단체카톡방에 공유했다.



[restaurant]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파는 식당이에요, 강아지가 들어올 수 있고 강아지 음식도 같이 파는 깔끔한 식당이니 반려견 환영입니다.



[애플망고문구점]

장난감을 파는 무인가게입니다. 학용품도 팝니다. 장난감도 필기구도 고급스러우니 많이 와주세요~



[수제 이름표샵]

핸드메이드 이름표를 만들어주는 특별한 가게야. 스티커 이름표나 레진이름표를 취향에 맞게 만들 수 있어. 직접 본인이 만들수도 있고, 컨셉을 고르면 내가 직접 만들어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이름표를 만들어줄게.

공식 질문 & 소감★★

1. 여러종류의 일이 있는데 어떤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 (아르바이트)

2. 나만의 가게를 만들어보니 어때?

이 봄	<u>엄청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돈을 벌어보고 싶어요.</u> <u>재밌었어요</u>
이 들	옷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싶어요. 진짜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것 같고 내가 커서 가게를 연다면 더 행복할것 같아요.
이하진	창문 닦는 서비스를 해보고 싶어. 창문을 닦아주면 깨끗하고 안에서 밖을 볼때 아름답게 보여서 좋으니까 나만의 가게를 만드니 뿌듯했어. 이름 지을 때 고민됐지만 실제로 저런가게를 하면 좋을 것같아.
이서진	청소하는것을 하고 싶어. 지구가 더러워져서 덥고 하니 쓰레기를 치워서 나을수 있게 해주고 싶어. 가게를 만들어보니 돈을 더 잘 모을것 같았어.
문지호	<u>커피집 알바를 해서 용돈을 벌어보고 싶다. 커피집에서 파는 다양한음료를 만드는게 재밌어보이기 때문이다.</u> 무엇을 팔아야 할지 종류를 여러가지 생각하는 것이 어렵기도 했지만, 레진이름표를 만드는 상상을 하는건 재미있었다.
문승호	<u>새로운 종이접기를 개발하는 유투버가 되어서 용돈을 벌고싶다.</u> <u>창의력도 좋아지고, 새롭게 발명하는것이 재밌을것 같기 때문이다.</u> <u>파는 물건을 정할때 조금 귀찮기도 했지만, 다 만들고 나니 뿌듯했다.</u>

부모의 3차활동 소감



허경미 (이봄, 이들)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고싶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아이들에게 아직은 막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야기 나눠보면서 경제 활동에 대해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맘버거 가게를 만들었길래 버거를 파는구나 생각했는데 아이가 이 버거를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돈으로 살 수없는 따뜻한 마음을 생각한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돈을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일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클 수있다는 생각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윤혜영 (이하진, 이서진)	2차 활동시 홈아르바이트를 진행했을때 내가 당연히 해야하는 일들 위주로 금액을 정해놓고 했었다. 3차활동지를 하면서 내가 당연히 해야하는 일들내용을 보고 아이들과 다시 얘기를 나눴다. 그래서 집안일중 공동으로 분담해서 해야할일을 찾아보고 그중 화장실청소를 하는데 이번기회에 이런것도 시켜볼수 있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해내서 용돈을 받는 모습에 기특하기도 했다. 또 나만의 가게를 만들면서 금액도 정하고, 물건들을 만드는데 과연 어느정도에 팔아야지 사람들이 살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며 하고, 요즘 무인가게나로보트가 식당에 있는것들을 기억하고 만든모습이 재미있었다.
송지혜 (문지호, 문승호)	아이들과 나만의 가게 만들기 활동을 함께하며, 물건의 값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동안 막연히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나의 가게를 만들어서 물건을 판다고 생각하니, "내가 만든 이 물건을 사람들이 이 금액을 주고 살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얼마에 팔아야 사람들이 많이 사갈까? 이걸 이렇게 팔면 나에게 남는 순이익은 어느정도일까?" 등등 여러 방면에서 질문해가며 생각을 확장해볼 수 있는 시간이였다. 또한 아이들이 매일매일 즐겁게 하는 종이접기와 만들기로 가게를 연다니 솔직히 속으로 누가 살까 생각도 했지만, 이러한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자신의 꿈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함께들었다.